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8. 21.(목) 총 2매(본문 2)	
담당부서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신교통개발과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팀장 오송천, 사무관 박효철 ·☎ (044) 201-3817, 4770, 4756	
보도일시	2019년 8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2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, 교통 플랫폼 업계 간담회서 혁신 지원 방안 모색 22일 플랫폼 업계 간담회...7.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부 이행 가속화

- 교통 플랫폼 분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. 카카오,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, 중소기업 등 약 20여사와 제도개선 방안과 택시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의 장을 마련하였다.
- 국토부는 정보통신(IT) 기술과 택시가 결합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8월 22일 목요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는 플랫폼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‘택시제도 개편방안’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,
  -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소통의 장(場)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자리이다.
  - 대책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,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여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.

- 이 자리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“플랫폼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‘택시제도 개편방안’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,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”면서,
  - “‘택시제도 개편방안’의 취지에 맞게 플랫폼 업계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국토부는 택시 및 플랫폼 업계,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‘택시제도 개편방안’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,
  -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.

